

2026년 오프쇼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비교

2026년 베트남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앞서는 이유

인도 및 필리핀과의 솔직한 비교 — 그리고 대부분의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팀에게 왜 베트남이 더 수월한 선택인지.

오프쇼어 소프트웨어 관련 논의는 언제나 베트남, 인도, 필리핀 세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베트남과 경쟁하는 업체들은 베트남의 영어 점수를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3년에 걸쳐 오프쇼어 팀의 비용을 실제로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다음은 수치에 근거한 실제 사례입니다.

총비용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지표: 인력 유지율

구분	베트남	인도	필리핀
소프트웨어/IT 연간 이직률	약 5-18%	약 20-30%	약 15-25% (사무직 기준)

베트남의 이직률은 세 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여러 자료 출처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채용, 온보딩, 업무 숙련 기간을 모두 포함하면 엔지니어 한 명을 대체하는 데 3~6개월치 급여가 소요됩니다. 40명 규모 팀을 3년 기준으로 모델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이직률 12%): 약 15명 교체 → 이직 관련 비용 약 급여 60개월치
- 인도 (이직률 28%): 약 34명 교체 → 이직 관련 비용 약 급여 136개월치

월평균 완전 부담 비용이 2,500달러인 팀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약 150,000달러 대 340,000달러에 해당합니다 — 시간당 효율이 몇 센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견적서 이면에 190,000달러의 격차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조차 실제 영향을 과소평가한 수치입니다. 연간 이직률이 30%에 달하는 팀은 결코 '일부는 계속 새로운 인력'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키마가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어떤 연동 부분이 취약한지와 같은 도메인 지식은 인력이 떠날 때마다 함께 사라집니다. 이직률이 낮은 베트남 팀은 이러한 지식을 잃는 대신 축적해 나갑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우려 — 잘못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

	점수 (2025년 EF EPI)	등급	전 세계 순위 (123개국 중)
필리핀	569	높음	28위
베트남	500	보통	64위
인도	484	낮음	74위

필리핀의 우위는 실질적이며, 실시간 음성 업무에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이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영어 격차가 있다”는 일반적인 담론은 인도의 점수를 나란히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은 인도보다 16점, 순위로는 10계단 높습니다 — 인도는 서구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아웃소싱해 온 시장입니다. 영어 실력이 베트남을 엔지니어링 업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는 인도를 먼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서 기반이며 비동기적입니다 — 티켓, 폴 리퀘스트 코멘트, 명세서, 스프린트 데모 등이며, 실시간 전화 통화가 아닙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패 유형은 불명확한 요구사항이지, 어색한 발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유능한 업체라면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할 구조로 해결됩니다: 요구사항 명확화를 담당하는 유창한 영어 실력의 기술 리드, 모든 작업 항목에 대한 문서화된 승인 기준, 그리고 데모 중심의 스프린트 리뷰입니다.

베트남은 저가형 선택지가 아니라, 실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요율은 다른 두 국가와 거의 같은 범위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시간당 약 27~45달러, 필리핀은 25~40달러, 인도도 비슷한 범위입니다 — 이는 의사결정을 좌우할 만한 차이가 아닙니다.

베트남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품질입니다. 베트남 개발자들은 HackerRank의 개발자 스킬 지수(Developer Skills Index)에서 세계 23위까지 오른 바 있으며, 이는 인구 규모가 훨씬 크고 홍보가 훨씬 활발한 시장들을 앞선 결과입니다. 이 산업은 연평균 약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약 550,000명 규모의 개발자 기반에서 매년 55,000~60,000명의 신규 기술 인력이 배출되는 졸업생 파이프라인은 레거시 시스템 유지보수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바일 퍼스트, 제품 엔지니어링과 같은 최신 기술 스택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또한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로 인해 서구 고객사들이 좀처럼 요구하지 않지만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문서화 엄격성과 결함 관리 규율이 업계 전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호주 시장에서의 이점

거점	AEST(호주 동부 표준시) 대비 시차	실질적 효과
베트남 (GMT+7)	3~4시간	오후 내내 당일 완전 중첩 근무 가능
필리핀 (GMT+8)	2~3시간	유사한 수준의 중첩
인도 (GMT+5:30)	4.5~5.5시간	오전에 제기된 질문이 다음 날 답변되는 경우가 많음

호주 및 뉴질랜드 팀에게 베트남은 진정한 의미의 당일 협업 시간대를 제공합니다 — 멜버른 시간 오전 9시에 제기된 질문이 같은 날 오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정직한 답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업체는 여러분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 실시간 영어 고객 음성 응대 업무 — 콜센터, 실시간 채팅 상담 — 에는 필리핀을 선택하십시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 3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필요한 대규모 기업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레거시·메인프레임 시스템에는 인도를 선택하십시오. 베트남의 약 550,000명 규모 개발자 인력 풀은 인도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그 기술 기반은 COBOL이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입니다.
- 그 중간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 — 제품 개발, 전담 엔지니어링 팀, SaaS 및 이커머스 플랫폼, AI·데이터 관련 업무, QA, 정밀도가 요구되는 백오피스 업무 — 에는 베트남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영역에서는 단순한 인력 규모의 확장성보다 지속성과 최신 기술 스택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베트남은 가장 저렴한 오프쇼어 시장이 아니며, 정직한 업체라면 그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제공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가치입니다. 세 주요 거점 중 가장 낮고 가장 안정적인 이직률, 세계 상위 25위권에 드는 엔지니어링 역량,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개발되는 방식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 스택 전문성, 호주 고객을 위한 당일 협업 시간대, 그리고 인도의 임금 상승률이나 필리핀의 태풍 위험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리스크 구조입니다.

세 국가 각각의 마케팅적 수사를 건너내면, 결정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실제로 무엇을 구축하려 하는가? 콜센터가 필요하다면 필리핀입니다. 500명 규모의 레거시 시스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인도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 제품 개발, 전담 팀, 오래 지속될 플랫폼 — 은 베트남의 영역이며, 2026년 현재 이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기본 선택지입니다.